



■ 제주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1년

작년 위반 8979건... 10건 중 3건 '렌터카'

지난해 과태료 4억3500만원... 올해도 4월 기준 1억대 통행량·단속 사례 많은 구간 단속 안내판 추가 설치 시 "전용차로 운영 잘 모르는 관광객 등 홍보도 강화"

제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년 만에 4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4월 말까지 부과된 과태료가 1억4000만 원에 육박한다. 제주시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렌터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의 30%에 달하는 등 버스전용차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단속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9일 제주시에서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취지로 2017년 10월 도입됐다. 현재 중앙로 중앙차로(24시간)와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7시30분)를 운영 중이다. 버스전용차로에 통행 가능한 차량은 버스, 택시, 교통 약자 차량에 한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초반엔 계도, 경고를 거쳐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2022년 1월 1일부터 1회 통행 위반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차종별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버스전용차로 단속 결과 총 8979건이 적발됐고 시민신고제 건수를 포함 전체(9090건) 과태료 부과액은 4억3500만 원을 웃돌았다. 이는 단속 강화 전인 2021년 과태료 부과액 1억393만 원(2054건)에 비해 4배 이상 증

가한 수치다. 이 중 가로변 차로에서 적발된 건수가 6076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적발 차량 중에는 렌터카가 2604건(전체의 29.0%)이었다.

올 들어서는 4월 말까지 2750건(중앙차로 1270건, 가로변 차로 1480건)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단속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시민신고제 15건 포함)는 총 1억3800여만 원에 이른다. 적발 차량 중 렌터카 비율은 28.9%(796건)였다. 이에 제주시는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를 중심으로 통행량이 많고 단속 사례가 많은 주요 위반 구간에 단속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새롭게 표지판이 설치되는 곳은 동광로 3개소, 서광로 12개소, 노형로 13개소다.

제주시 측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잘 모르는 관광객이나 시외 지역 운전자들의 위반 사례가 많아 단속 안내 표지판을 늘리게 됐다"며 "안내판 추가 설치로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지난해 8979건의 위반차량이 단속됐으며 이중 렌터카가 30%를 차지했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위반 구간에 단속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 이상국기자



소방본부가 9일 제주소방서에서 재난 현장 지휘를 전담하는 '현장대응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재난 현장 컨트롤 타워 '현장대응단' 신설 제주소방 어제 출범식... 도내 4개 소방서 배치·운영

하루 평균 출동건수 246건, 6분에 한번 꼴로 출동하는 제주소방 당국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응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9일 제주소방서에서 제주지역 4개 소방서에 대한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현장대응단은 민선 8기 공약인 '119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 고도화'의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기존에는 소방서 현장대응과에서 소방 행정과 현장 출동 업무를 담당했지만 개편을 통해 행정 기능을 분리하고 현장대응단이 재난현장 대응과 지휘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지휘팀장과 119센터장의 직급이 같았으나 현장대응단장의 직급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상향해 체계적인 현장 지

휘체계를 확립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초대 단장으로 임명된 4개 소방서 단장들에게 임용장과 계급장, 헬멧을 전달하고 "현장대응단이 앞으로 큰 역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제주소방의 특수 구조 장비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다.

시연에서는 재난 현장을 누비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요구조자를 찾는 소방드론이 공개됐으며 수중 영상 촬영 장비, 붕괴물 경보기, 매몰자 영상탐지기 등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제주 전 지역 소방서에 보급된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와 질식 소화포 등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도영기자

유형업자에 단속 정보 흘린 전 경찰관 실형 항소심, 징역형 집유 3년 원심 파기... 징역 10개월 선고

제주지역에서 유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리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

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제주시 소속 공무원 B(56)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해 1심보다 가벼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뇌물을 준 유형업자 C(54)씨에겐 원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형업자 C씨로부터 940만원을 받아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돼 경찰복을 벗었다

B씨는 2021년 4월 19일과 그 해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유형업소 2곳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지만 B씨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국가 기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애 비자 연장 협조 안해줘" 교수 스토킹 유학생 벌금형

비자 연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스토킹 한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대학교 유학생인 A씨는 담당 교수가 자신의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2021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교수

의 휴대전화와 연구실로 120여 차례 전화를 걸거나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교수는 A씨가 학업이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몰두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월급 많이 받아라', '내 등록금 다 빼먹냐', '경고하겠다', '인권센터를 알고 있냐' 등 교수를 비꼬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그랜드보청기

5월 가정의달 부모님을 위한 선물증정 대 이벤트
① 20만원 상당 선심배양근 ② 15만원 상당 uv전자기제거제 *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생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점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매점